

# 공항철도, 역사 4곳서 '트래블센터' 운영 외투 보관도 가능



서울역 트래블센터(지하2층)



인천공항1터미널역 트래블스토어 외투보관서비스

공항철도가 해외 관광객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서울역 등 4곳에 트래블센터와 트래블스토어를 운영 중이다.

트래블센터는 인천공항1터미널역, 서울역, 홍대입구역, 김포공항 등 4곳이며, 이용객이 많은 인천공항1터미널역에는 트래블스토어를 함께 운영한다.

트래블센터에는 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베트남어, 독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투어 매니저가 상주해 고객에게 관광지와 대중교통 이용정보 등을 제공한다.

또 출국 전에 심 카드(SIM card)를 구매할 수 있고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포켓 와이파이와 가내 반입이 가능한 휴대용 유모차를 대여할 수 있다.

특히 더운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이용객은 공항철도 트래블스토어에 겨울 외투를 맡길 수 있다. 성인 의류 1벌당 7일 기준으로 1만4천원이며 목도리, 장갑 등 방한용품은 무료다.

제주항공, 티웨이, 이스타항공, 에어서울 항공권을 제시하거나 국민카드, 우리카드, JCB카드로 결제하면 5천원을 할인받는다.

외투 보관 서비스 등 상세한 정보는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미스터 코트룸([www.mrcoatroom.com](http://www.mrcoatroom.com))을 이용하면 된다.

정용희 마케팅팀장은 "외투 보관 서비스는 작년 겨울철 대비 이용객이 2배 이상 증가했다"면서 "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위탁수하물 추적과 도착 알림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"이라고 밝혔다. ▼

